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을 점검하자



이상현의
창업칼럼

창업의 성공실패는 작은 원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또는 자금확보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심한 전략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첫째,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라. 창업은 장기레이스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운영기간을 고려할 때 약 4년 동안 한정된 공간과 시간속에서 고객과의 지루한 전쟁을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가장 좋아하며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지혜야말로 성공창업을 위한 지름길이다.

둘째, 창업자금의 70%는 자기자본으로 창업하라. 2022년도 소상공인들의 평균 창업비용은 8700만원이다. 그중 점포에 관한 비용 즉 권리금과 보증금에 약 5000만원을 지출했고 인테리어 등 시설과 용품에 3700만원을 사용했다. 창업비용 중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한 타인자본을 사용한 경우 수익성 중 이자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 수익성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셋째, 반드시 3개월 이상 현장체험을 하길 바란다. 관련 매장에서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업종인지, 할 수 있는지, 수익성은 어떤지, 고객의 반응은 어떤지를 확인, 경험하고 창업하는 방식은 필수다.

넷째, 표적고객의 소비성향을 분석하라. 창업 아이템에는 표적고객이 반드시 존재한다. 연령이나 성별이 고른 소비자를 보유하는 아이템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수치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대수익보다 현실수익성에 눈높이를 맞춰라.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인건비, 원부재료구입비율, 세금 그리고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비율이 가격 인상폭을 훨씬 상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대수익성이 아닌 현실 수익성을 목표로 창업에도 전해야 한다. 투자비용대비 2.2~2.8%의 월수익성도 우수한 수익성을 인지하자.

여섯째, 성공창업을 위해선 목표경영이 필요하다. 투자한 자금을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장기목표와 중기목표 그리고 단기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가지고 창

업을 준비하고 점포를 운영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일곱째,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분석은 필수. 실제로 창업자들은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미투' 창업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계획은 성공을 위한 창업방정식의 필수다.

여덟째, 아이템보다 운영자가 경쟁력이다. 창업해서 성공한 대박 창업자들의 아이템을 보면 모두가 다 아는 평범한 아이템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대박집의 비밀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이템보다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최고의 경쟁력일 경우가 많다. 결국 고객은 만족의 범위중 사람에 대한 만족이 충성지수를 지속한다는 방증이기도하다.

아홉째, 가족의 동의는 필수. 창업시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구인이다. 부부가 창업시장에 뛰어들다보면 아이들과 부모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매장을 운영하는 절대적인 안정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의 협업은 물론 마음으로나 실질적인 도움과 애정은 더욱 창업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믿고 걸려내는 안목 키워야 할 때



기자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운동없이 먹기만 했는데 사이즈가 줄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SNS에 올라오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 글이다.

여름을 앞두고 미용·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 모델의 '내돈내산(내가 돈 주고 내가 산)' 후기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업체가 피부미용과 다이어트,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빈 박스 마케팅'이 있

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부여,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디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후기의 진위 여부가 모호하다 보니 정부의 단속도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일일이 모든 의심 사건을 조사하고 적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가정의 달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는 82건에 달했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결국 소비자 스스로 제품을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다. 안정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확인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절차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에만 주어지는 인증 마크를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먹기만 했는데 살이 빠지고, 바르기만 했는데 주름이 사라진다?' 무조건 사야하는 광고 문구가 아닌, 무조건 믿고 걸려야 하는 광고 문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tree6834@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세상에서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끝나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끝나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끝나는 퍼즐입니다.



정답

1	4	7	2	8	9	5	3	6
5	2	8	6	4	3	7	9	1
6	9	3	1	7	5	4	2	8
3	1	5	4	9	2	6	8	7
8	6	4	3	5	7	9	1	2
2	7	9	8	1	6	3	5	4
9	5	1	7	2	4	8	6	3
4	3	2	9	6	8	1	7	5
7	8	6	5	3	1	2	4	9

3	8	2	9	4	5	7	6	1
6	4	9	1	3	7	5	2	8
7	5	1	8	2	6	9	4	3
2	6	4	7	5	3	1	8	9
5	9	3	6	1	8	2	7	4
9	1	7	4	8	2	6	3	5
4	2	5	3	6	9	4	1	7
7	8	6	5	7	1	8	9	2
1	4	7	9	5	3	6	2	8

고민이드는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5월 24일 (음 4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희망이 존재하니 실망하지 말 것. 48년생 직장 집안 안전점검을 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 막지 마라. 60년생 마음은 있으나 지갑 사정이. 72년생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84년생 오늘의 실력은 평소 노력에서 온 것.



37년생 나이가 있어도 재능을 사장 시키지 말고 일할 것. 49년생 오기를 부리거나 자존심을 심히 내세우면 적이 생긴다. 6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73년생 잠시 계획은 접는 것이 실패를 줄인다. 85년생 투자정보를 얻는다.



38년생 사업관련 사업은 당분간 유출되지 않도록. 50년생 약진 할 수 있는 운이 도래된다. 62년생 지실이 동하니 객지 밥을 먹게 된다. 74년생 상담이 잘되어 계약도 이루어진다. 86년생 병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39년생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은 신용이 기초. 51년생 옳은 일에는 주관을 확고히. 63년생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는 있게 마련. 75년생 능력이 펼쳐진다. 87년생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데 삶은 왜 이다지 힘든 것인지.



40년생 귀인이 찾아와 자녀의 혼사가 결정. 52년생 바쁠수록 계획표를 다시 챙겨보라. 64년생 의의의 성과로 신난다. 76년생 두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것이 현명할 듯. 88년생 시간을 갖고 생각하니 금전유동이 이루어진다.



41년생 오늘은 먼 길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53년생 조상님산소를 돌보니 뜻 깊은 하루. 65년생 부서 이동으로 다소 복잡하나 별전적. 77년생 친구들과 정치 종교 얘기 나누다 더디지 마라. 89년생 말 한마디가 천 낭 빛을 깊음.



42년생 일의 길은 따르더라도 급하게 하지 않도록. 54년생 첫인상을 좋게 가지려면 시간악속 잘 지켜라. 66년생 식구에게 집착보다는 사회성을 키우라. 78년생 잘못을 지적하다 다툼이 예상. 90년생 대출받아하는 투자는 다음 날로.



43년생 얘기하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 55년생 오후에 손재수이니 차량 벌금 날아온다. 67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79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라. 91년생 의외로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주위에서 조력을 구해보라.



44년생 여성 간의 만남에서 망신 수가 있다. 56년생 실수를 떠벌리는 것보다 조용히. 68년생 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된다. 80년생 해외파견 근무를 신청하면 될 것. 92년생 재물에 공망이 있으니 매매계약은 서두르지 말자.



45년생 재물에 귀인이 동행하니 뜻대로 된다. 57년생 작은 일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69년생 노후대비는 지금 시기부터. 81년생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며 나를 성장시킨다. 93년생 재산상속은 앞일이 어쩌면 어려워질 징조.



46년생 젊은 나이가 아니니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58년생 겉보기에는 이득이 있을 것 같으나 감언이설. 70년생 신발장을 정리하여 머리를 맑게 하라. 82년생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용기가 필요. 94년생 아직의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47년생 현재 위치를 생각하면 실수가 없다. 59년생 옛 지인으로부터 업무의 정보를 얻는다. 71년생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83년생 부서를 옮기려다 구설수에 뛰인다. 95년생 호사다이라 돈은 나갔으나 집안에 별일은 없다.



김상회의四季

성격이 팔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탄식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본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저는 왜 이런 팔자를 타고 태어났을까요?"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안 해본 사람들도 드물 것 같긴 하다. "성격이 팔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인데 성격이란 것이 자기가 태어난 음양오행의 특성과 기질인 것인가 결국은 팔자구성의 오행만 살펴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태어나는 사주 여덟 글자의 오행과 음과 양은 자신의 세세생생 업의 물질을 상속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업(業)'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업이란 다른 아닌 자신이 짓고 말하고 생각한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뜻 한다. 결국 내 사주팔자 내 성격은 내가 짓고 말하고 생각한 것들의 기운의 복합체가 상속된 것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팔자나쁘다고 탓할 것이 없고 좋은 운, 좋은 팔자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현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하면 될 것이다.